

지역건축탐방 9 - 대전

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/ Taejeon

대전의 근·현대 건축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시건축이 특정한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, 좌충우돌 격변의 시기를 겪어온 셈이라 할 수 있다. 좋게 말하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시기가 할 수도 있지만, 그러한 긍정적인 시선이 정당화되려면 마땅히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검토와 성찰이 뒤따라야 옳은 일이라 여겨진다. 건축을 문화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간 우리는 무엇을 잃었으며, 무엇이 복원되어야 할 가치이며,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.

빅토르 위고의 지적처럼 역사는 책으로도 쓸 수 있지만 건축물로 쓸 수 있다는 교훈을 되살려 보면서 우리 도시건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경시풍조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. 가까운 과거를 서구 근대건축의 완성도에 못미친다는 편협된 잣대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과 더불어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.

아울러 도시건축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고유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. (김억중 / 편집디렉터)

대전의 역사와 풍속 / 한상수(대전대 국문과)	58
도시의 일상 / 고성희(서울대 박사과정)	61
대전의 근·현대건축 / 김정동(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)	65
대전의 현대건축 / 유병우(씨엔유건축)	71
21세기 대전건축의 주역 / 송용호(충남대 건축공학과)	74
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/ 김억중(편집디렉터, 한남대 건축공학과)	77
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과제 / 임양빈(건양대 건축공학과)	79

좌담: 대전 / 대전 도시건축의 잠재력 84

- 일시: 1998년 10월 12일(월) 14:00~

- 장소: 목원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강당